

삼국시대 금관의 문양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양지나⁺ · 이동아^{*} · 이상은^{**}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Custom Design Making an Application of Patterns of Gold Crown of the Three States Era

Jina Yang⁺ · Dong-A Lee^{*} · Sang-Eun Lee^{**}

Lecture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Lecture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Prof.,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2006. 12. 15. 접수, 2007. 1. 8. 채택)

Abstract

As the world has been forming the global village and the cultures of each country are exchanged, the unique cultural specialty of each country has been merged with the generality in the world. The increasing interest on the oriental world and the globalization recently brings the fusion form of oriental and occidental cultures. In such a global trend, it is our challenge to find out the traditional beauty and the design factors of Korea for the new challenge and development of Korean fashion and to develop the most Korean and global design by interpreting them in a modern sense.

It is the Era of the Three States when an official hat among the personal ornaments of Korea was firstly described on the literature, including the literature of ancient China and Chronicles of Three States and Heritage of Three States of Korea. Those literatures clarified that the people in Goguryeo, Baekje, Silla and Gaya decorated themselves with gold, silver and jade. Furthermore, since various kinds of ornaments have been excavated, they shown the development of metal craft in the Era of Three States.

This study aims to exploit the design motives among the gold crown elements among the ornaments during the Era of Three States, interpret them in a modern expression, develop the textile design using the Adobe photoshop and suggest the application approaches by applying them to the clothing design.

Key Words: Gold crown(금관), Ornament(장신구), Traditional beauty(전통미), Development(개발), Motive(모티브)

⁺Corresponding author ; Jina Yang

Tel. +82-11-9996-9286, Fax. +82-2-450-3304

E-mail : yangjina1121@hotmail.com

I. 서론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가 상호 교류되는 가운데 각각의 독자적인 문화특수성과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것 융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 중 동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 동서양 문화의 퓨전(fusion)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패션의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 한국의 전통미와 디자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홍콩의 상하이탕 같은 브랜드 경우 중국의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의상,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등을 상품으로 제작하여 중국문양과 색을 성공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국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기존에는 그 요소가 자수, 소재, 색채, 한복의 변형등에서 많은 모티브를 찾았으며, 한정적인 디자인, 소품 그리고 기성복화 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글이나 직물의 문양, 장신구등의 모티브 발굴로 기성복에서도 한국적 요소가 느껴지는 무한한 그 가능성이 보여 졌으며, 각종 드라마에서 스타들이 입고 나오는 한복이나 기성복화된 한복을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 패션디자인의 한 요소인 문양은 디자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밋밋한 의복표면에 장식함으로서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¹⁾. 전통문양으로부터 디자인 모티브를 빌려와 한국적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패션디자인 이외에도 도예, 장신구, 인테리어 소품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거의 대부분에 문양 발굴은 직물문양이나 자수, 장신구 소품등에서 그 모티브를 얻었으나, 공예분야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장신구 중의 하나인 직선적 강인함과 유동적 화려함이 같이 공존해 있는 금관에 그 모티브를 찾아 발굴하였으며, 그 요소를 패턴으로 변형시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하고 이를

Adobe Photoshop 7.0을 이용, 기존 의류 도식화에 접목시켜 한국 전통의 느낌이 살아있는 기성복 제품을 시도, 이를 현대적 표현으로 재해석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된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국내외 박물관 문헌과 학술지, 패션 잡지, 인터넷, 실물 등의 자료를 고찰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상디자인 소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인 연구 내용은 삼국시대 금관에 관한 정의와 구성요소, 특징 및 상징성에 관하여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의상디자인 소개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금관의 요소를 photoshop을 이용하여 재구성 하였다. 재구성한 모티브는 패턴 구성방법 및 전개방법을 통하여 디자인으로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텍스타일 패턴은 도식화를 통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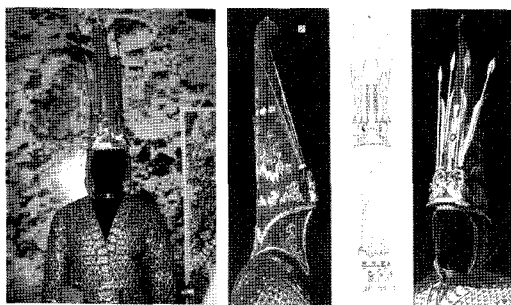
1. 삼국시대 금관에 관한 고찰

1) 금관의 정의

금관이란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모든 관모를 포함시켜 통칭하기도 한다. 주로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신라고분의 출토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관은 그 형태와 용도에 따라 의식용으로 생각되는 외관(外冠)과 일상용의 내관(內冠)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와 똑같은 형태를 갖춘 금동제·은제·수피제의 관모류도 상당수가 발견되고 있다²⁾.

2) 금관의 특징 및 상징적 의미

금관은 계급사회에서 위엄과 신분의 차별을 위한 장신구 중 대표적이며, 예로부터 북방 계민족의 특징 중 하나는 관모(冠帽)의 착용과 금에 대한 숭배이다. 스키타이에게 원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관모의 착용이 이루어 졌고, 금관은 샤먼시대의 가장 신성한 신기로서, 최고



<그림1> Issyk Kurgans의 황금인간
출처: Ancient Gold Collection (1998). Ancient Gold Collection.
Didar Publishing Co., Almaty, Kazakhstan, p.5

의 권위를 상징하며, 이에 금관은 신분이 높은 계급, 제관, 왕족에서 금관을 착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고대사회 국가별로 나타난 상징적 의미는 다르나 삼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샤머니즘의 영향이 가장 크다. 스키타이 문화 또한 강한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특유의 동물 의장으로 대표되는 예술품들은 주술적 의미와 실용성이 가미되어 빠른 속도로 유라시아 전역에 전파 되었다³⁾. 상징적 의미와 금관의 승배, 금관의 장식 표현이 전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물로서는 카자흐스탄의 이썬 쿠르간 (Issyk Kurgans)에서 발굴된 스키타이인의 유물 황금인 (B.C.5~3세기)에서 대형 원추형 모자에 날개를 펼친 새 한 쌍이 앉아 있는 샤머니즘적 장식을 보여주는데, 이는 서봉총(瑞鳳冢)에서 출토된 신라금관에도 새가 3마리 앉아 있어 황금인간의 원추형 모자와 모티브가 같음을 알 수 있다<그림1>.

금관의 상징적 의미 중에는 샤머니즘의 영향인 새 장식, 녹각장식, 신목, 입화식이 있고, 음양오행설에 의해 화염(火焰)문, 수목(樹木)형과 용감성과 위엄 그리고 주술적 상징으로도 추측되는 곡옥, 불교의 영향을 받은 연화문 등 다양한 형태와 그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삼국의 금관의 특징

1) 고구려

1-1. 관모의 기원

고구려도 기마민족의 풍습을 받아 남녀노소

모두 관(冠)의 착용이 이루어진 것을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알 수 있고, 신분의 계층에 따라 “왕은 오채복(五彩服)에 금테를 두른 백라관(白羅冠)을 썼다⁴⁾.”라고 하며, 안악 3호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지 동이전에 “공사에 모일 적에 모두 비단과 금은으로 장식하고, 특히 대가(大加)나 주부(主簿)는 관과 같이 생겼으나, 뒤가 없다. 또 소가(小加)는 절풍(折風)을 쓰는데 이 모양이 고깔과 같다⁵⁾.”라는 기록이 있다. 북사(北史), 신당서(新唐書), 수서(隋書)에 기록들도 “왕을 비롯 귀족층에서 관모(冠帽)에 금은 장식을 했다⁶⁾.”라는 기록으로 보아 금관은 왕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썼을 것으로 추측된다.

1-2. 금관의 구조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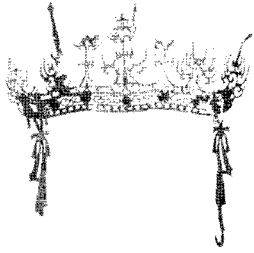
고구려 금관은 고분벽화와 출토품을 통해 알 수 있으나 그 유물과 기록이 거의 없다. 그 기본 구조는 대륜에다가 여러 형태의 장식을 한 것인데, 고구려 고분벽화나 백제국사도에서 보는 것처럼 관의 좌우에 끈을 달아 귀를 내놓고 지나게 해서 턱 밑에서 고정을 시켰는데 그 크기는 겨우 머리에 얹혀 질 정도이며, 중심 부분을 강조하고 뒤가 터진 형태이다. 외관은 대륜식 입식관이며, 내관은 모(帽)와 전입식(前立飾)의 형태로 되어 있다. 고구려 금제관은 입식(立飾)장식이 화염형(火焰形)과 입식(立飾)상부(上部)가 안으로 굽은 변장(弁狀)의 수지형(樹枝形)으로, 인동문과 연주문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이다⁸⁾<그림2,3>.



<그림2> 건책(巾幗:무량사 인물상)
출처:유희경(2001). 한국복식문화사, p.33

(1) 대륜식 입식관 (4~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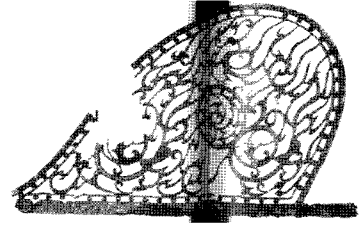
대륜식 입식관은 외관(外冠)으로 고분벽화와 평양 청암동 토성 출토 투조화염문금동관을 통



<그림3> 투조화염문 금동관
출처: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90



<그림4> 평북용호동 1호분 금동 봉황
출처: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91



<그림5> 평남 진파리 1호분 금동 모자 장식
출처: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90

해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신라와 가야의 수목형입식관, 수목녹각형입식관과는 달리 고구려 대륜식입식관은 백제의 입식관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⁹⁾.

(2) 조우식(鳥羽飾)

내관(內冠)에 해당하는 조우식은 좌우입식을 가지는 정형화된 관식에서 좌우, 중심부로 이루어진 삼귀식(三耳飾)의 형태로 변화했다.

(3) 관식(冠飾)

고구려의 금제장식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평북 용호동 1호분 금동 관에서는 암수 한 쌍의 봉황으로 된 금동관과 평남 진파리 1호분 금동 관은 중앙에 삼족오(三足烏)가 투조된 것이 출토되었는데, 그 피장자와 장식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무령왕릉 금제 관식을 미루어 보아 관모의 장식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림4,5>.

1-3. 금관의 사상 및 상징성

금관은 기마민족 특유의 산물이며, 금을 귀히 여기었다. 그래서 금관의 착용자를 왕과 제사장 등 높은 계층에서 썼을 것이라 여기었고, 고대 삼국에서는 제천의식(祭川儀式)에서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사회형태를 통해 이들의 금관을 권위와 위엄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기록에는 이규보(李奎報)의 동명왕편(東明王篇)에서 새와 농경에 관한 기록이 언급되는데, 주몽이 부여를 떠나 이동 할 때 어머니가 싸준 곡식의 씨앗을 감막 잇고 왔는데 뒤늦게 씨앗(농경사회를 의미)을 물어다준 동물이 비둘기였다. 여기서 비둘기는 씨앗, 즉 농경신(神)의 의미를 갖고 있다¹⁰⁾. 불교의 영향으로는 왕권의 확립이 이루어졌으며, 화염형 입식관, 인동당초문의 식물문양

등으로 불교적 색채가 가미 되었다. 대체로 절풍(折風), 소골(蘇骨)등의 조우삽식(鳥羽插飾), 화염형(火焰形)입식장식의 금은관(金銀冠)등에서 사머니즘적 조류승배 사상과 불교문화영향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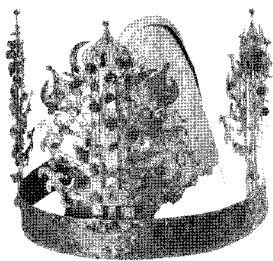
2) 백제

2-1. 관모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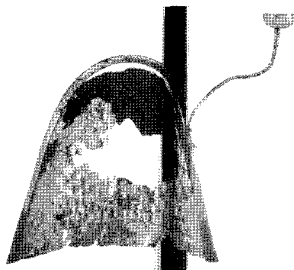
백제는 농경사회의 문화를 정착 시키고 중국 남조문화, 불교, 사머니즘적인 성격을 가지고 백제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하고 세련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 동이전 백제조에 “왕복은 대수자포에 청금고(靑錦袴)를 착용하고 소피대(素皮帶)를 띠었으며, 오혁리(烏革履)를 신었고, 관모로는 금위(金縷:金花)를 장식한 오라관(烏羅冠)을 썼다.”라는 기록¹¹⁾을 통해 관(冠)을 쓰고 금장식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공복(公服)제도 기록이 고구려, 신라와 달리 고이왕 27년에 제정 된 문헌이 남아 있어 그 기록을 살펴보면, “관식(冠飾)으로 왕은 금화(金花)를 하고, 1품 좌평(佐平)-6품 나솔(奈率)까지 은화(銀花)를 하였다¹²⁾.”라고 그 피장자와 계급에 따라 그 장식을 달리 했다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다.

2-2. 금관의 구조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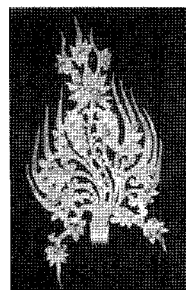
금관은 출토 되지 않았고, 나주 신촌리 9호 분묘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내관과 외관이 함께 나타나며, 수목형 입식관으로 거의 완전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익산 입점리에서 고갈형 모자 금동모가 출토 되었으나, 완전한 형태를 알



<그림6> 나주 신촌리 금동관
출처: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86



<그림7> 익산 입점리 금동모
출처: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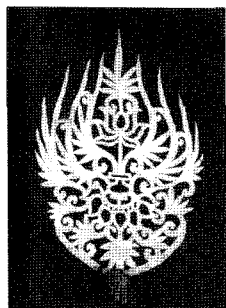
<그림8> 백제 금제관식 왕
출처:유희경(2001).
한국복식문화사, p.45

수가 없다. 무령왕릉에서 출토 된 금제 장식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연화문 형태와 초화문 투조식으로 금영락이 달려있고, 당초문, 인동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착장 하는 방법은 고구려와 거의 비슷하며, 관(冠)은 비단으로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금제관식과 뒤꽂이로 금관에 대해 추측을 할 뿐 금제 장식을 좌우에 달았는지 전후로 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1) 관(冠)

나주 신촌리 9호분묘의 금동관의 내모(內帽)는 질풍형이며, 외관(外冠)은 대륜형식에 여러 층으로 구성된 독특한 형식인 3개의 수목형 입식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익산 입점리 출토품은 금동모로써 고깔형이다. 투각으로 장식되어 있고, 동물의 꼬리 같은 형태가 1개 달려 있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 남조(南朝)시대에 유행했던 것으로 일본의 구마모토 후나야마 고분 금동모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³⁾<그림6,7>.

(2) 관식(冠飾)



<그림9> 백제 금제관식 왕비
출처:유희경(2001).
한국복식문화사, p.45

백제 무령왕릉 출토의 관식을 보면, 전반적으로 초화(草花)형을 띄고 있다⁴⁾. 중심은 비대칭 형태로 인동초화엽과 연화를 결합하여 화염(火焰)문 형태로 나타나 불교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꽃과 같은 곡선적인 구조와 얇은 금판에 투조(透彫)를 하였으나 고구려와 달리 당초와 연화문으로만 이

루어져 있고 연꽃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⁵⁾. 왕과 왕비 두 개의 관식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착용 위치에 대해서는 발견 당시 관식(冠飾) 두 개가 왕의 가슴부분에서 겹쳐져서 발견이 되었는데, 고분벽화나 불상등을 보면 관이나 머리장식이 전면을 강조 하고 있어 전후(前後)입식(立飾)의 형태라는 설⁶⁾과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3 잡지(雜志) 제2에“백제인은 조배(朝拜)와 제사(祭祀) 때 관의 양 쪽에 깃을 꽂는다.”라는 기록으로 좌우(左右)입식(立飾)이라는⁷⁾ 설도 있다<그림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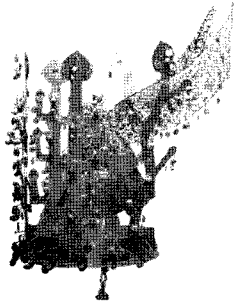
2-3. 금관의 사상 및 상징성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어느 곳에서 더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지형금동관에서 샤머니즘 성격을 보여주는데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신수(神樹), 우주목(宇宙木)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이라 믿었다. 고구려의 특징적 형태인 화염(火焰)형의 형태와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아 보주(寶珠)형태, 연꽃문양이 나타나며, 또한 화병에 담긴 연꽃은 남조시대 화상전(畫像傳)에서도 보여지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을 직접 교류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왕의 위엄과 성불(成佛)을 기원하며, 윤회사상과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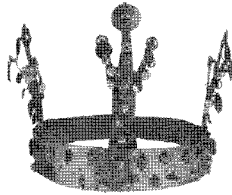
3) 신라

3-1. 관모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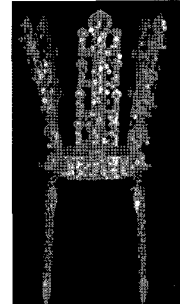
신라의 관모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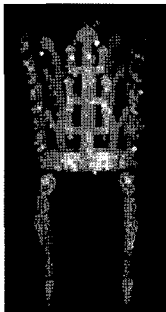
<그림10> 경주 금관총 금관
출처: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66



<그림11> 경주 교동 고분 금관
출처:국립경주박물관 (1996). 신라의인의 무덤. 동천문화사,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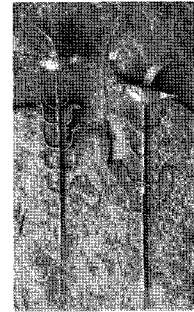
<그림12> 천마총 금관
출처: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70



<그림13> 서봉총 금관
출처: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68



<그림14> 서봉총 금관의 새 3마리
출처: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112



<그림15> Issyk Kurgans 황금인간의 모자의 새장식
출처: Ancient Gold Collection (1998). Ancient Gold Collection. Didar Publishing Co., Almaty, Kazakhstan, p.8

때에 썼는지는 구구한 학설로 그 정설이 없다. 또한 금관이 실용적인 것인지 비실용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역시 정설이 없다. 다만 그 출토지가 대형 고분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목걸이, 귀고리, 팔찌등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고위자가 썼던 것으로 생각되어 왕의 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신라의 금관은 수목형 입화식 금관을 샤아만(Shaman)의 관으로 해석하고 왕관이 아닌 제사자(祭司者)의 의식용 관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국왕의 예관, 또한 죽은 자를 위한 장송용 보관(寶冠)등으로 생각되기도 한다¹⁸⁾.

3-2. 금관의 구조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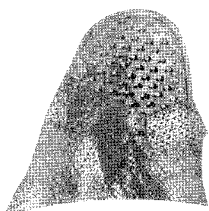
신라의 금관은 출토된 예가 10여점이나 되고 대부분 완형(完形)을 보존하고 있으며 가장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대체로 그 형식이

일률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다. 신라 상류사회의 성장(盛裝)하는 풍습으로 인해 특유한 양식의 거대한 적석분(積石墳)이 무수하게 세워졌고 금관총, 금령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 교동, 진고령출토 금관과 진평소장 금관등을 출토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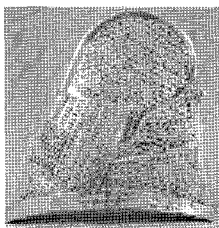
관의 형식은 크게 외관(外冠)과 내관(內冠)으로 분류되고, 외관의 구조는 입식(立飾)과 수하식(垂下飾)으로 나뉜다. 착장법은 외관 안에 삼각형의 내관을 받쳐 쓰고, 그 위에 조익형의 관식을 꽂았다¹⁹⁾.

(1) 관(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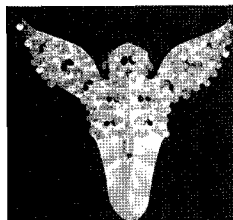
금관총의 금관은 전형적인 외관으로서, 형식은 금관을 올려서 만든 둥근 대륜(臺輪)위에서 중앙 정면과 좌우에 수목을 상징하는 출(出)자형 입식 세 개, 그 뒤쪽으로 사슴을 상징하는 늑각 입식 두 개를 좌우 대칭으로 세웠으며, 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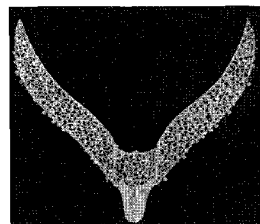
<그림16> 신라 금관총
금제관모
출처: 신라인의 무덤, p.47



<그림17> 신라 천마총
금제관모
출처: 신라인의 무덤, p.60



<그림18> 천마총 출토 금제
나비모양관 장식
출처: 신라인의 무덤, p.59



<그림19> 천마총 출토 금제
조익형관 장식
출처: 신라인의 무덤, p.59

의 끝은 보주(寶珠)형으로 맺었다. 또한 모든 입식의 가장자리에 타점열문하여 입식이 휘지 않게 고려하였고, 영락과 비취곡옥을 규칙적으로 달아 금관의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수하식에는 호화로운 태환식(太環式)수식을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구조는 출토된 금관의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관총과 교동 출토 관에서는 영락과 곡옥이 없는 것이 이례적이다<그림10,11>.

천마총 금관은 내관과 외관이 갖추어져 있으며, 다른 관에 비해 크기가 크고 가장 호화롭고 웅장하다. 입식에서 출(出)자형이 4단인 것이 특징이다<그림12>.

서봉총 금관은 내관 없이 외관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두 개의 양대(梁帶)를 십자로 교차시켜 내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양대 교차점 끝에는 얇은 금판을 오려서 만든 세 개의 봉황형의 조형(鳥形)장식이 있는데, 이것은 영조(靈鳥)로서 조류승배사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20).

(2) 관모(冠帽)

천마총에서 출토된 관모는 T자형과 굽은옥모양 당초무늬등을 맞새김한 얇은 금판 여러 장을 붙여 만든 것으로, 크기로 보아 형짚이나 가죽등으로 된 모자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1)<그림16,17>.

(3) 관식(冠飾)

천마총에서는 새 날개 모양과 나비 모양의 금제관식이 출토되었다. 신라무덤에서 새의 날개가 출토된 것은 천마총이 처음이다. 금제 조익형은 큰 새가 양 날개를 활짝 폈을 때 모양을 도안한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관식이다. 기부와 조익부로 구분되고, 기부는 관모에 꽂게 하였

다22)<그림18,19>.

3-3. 금관의 사상 및 상징성

신라금관에 보이는 사상 및 신앙은 첫째 수목형입식이 지니고 있는 신목(神木)신앙과 둘째 서봉총 금관의 조형식이 지니고 있는 천조(天助)신앙으로 볼 수 있다.

신라금관은 산(山)자 또는 출(出)자형입식 외에 좌우에 두 개 또는 세 개 나뉘는 모양입식이 있다. 이 수지형입식은 시베리아 모든 민족의 “생명의 나무”, 세 개의 나무와 그 형태, 의

<표1> 삼국시대 금관에 나타난 형태와 상징성 비교

		고구려	백제	신라
관	형태	유사점	금속제 변형모 대륜식 입식관	금속제 변형모 대륜식 입식관
	차이점	화염형	화염형, 수목형 정형화, 도안화	출자형, 녹각형 정형화, 도안화
관식	유사점	조익형, 화염형	화염형, 수목형	조익형, 수목형
	차이점	거치(鋸齒)형	입화(立花)형, 초화(草花)형	녹각형, 출자형, 나비형
영락, 곡옥 유무		무	영락 - 유 곡옥 - 무	영락 - 유 곡옥 - 유
사상 및 상징적 의미		사머니즘, 불교, 도교	사머니즘, 불교	사머니즘, 북방민족신앙, 불교

장, 사상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곧 시베리아의 모든 민족의 샤머니즘으로서의 원시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목신앙의 대표적인 예는 천마총(天馬塚)에서 발굴된 금관이 있고 천조신앙의 예로 서봉총 금관을 들 수 있다. 서봉총 금관의 특징은 가지위에 새 3마리가 앉아 있다는 저이다. 이새는 몸집이 무거워 보이고 머리에는 관(冠)모양의 깃털이 나 있다. 이새는 봉황새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형식은 한국 조류신앙의 솟대신앙과 관련되며 그것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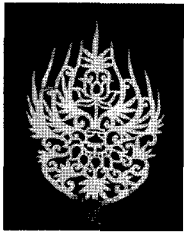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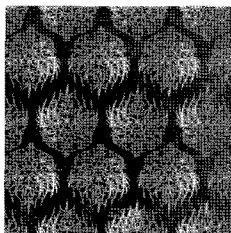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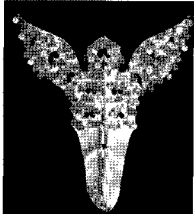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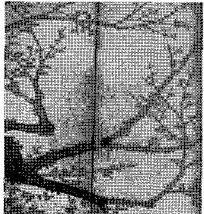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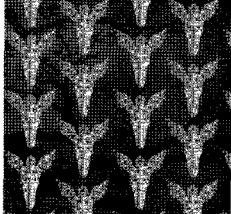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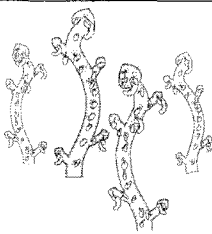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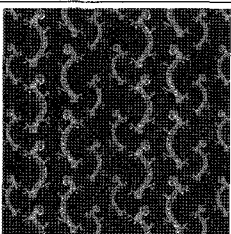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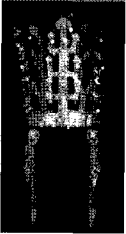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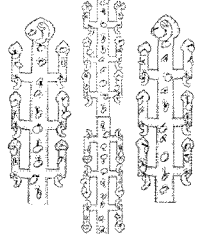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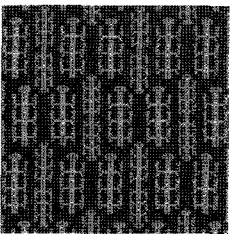
베리아 여러 민족의 조류숭배의 샤아만으로서 원시신앙의 원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³⁾.

III. 작품제작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금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상징적 의미가 잘 나타나 있고,

<표2> 텍스타일 패턴 제작과정

번호	금관이미지	문양의 재구성	텍스타일 패턴
1			
2		 매화도 수병	
3			
4			

<표3> 도식화 적용

<p>신라금관의 녹각형 모티브를 photoshop에서 패턴으로 변형시킨 후 블라우스로 도식화에 적용</p>	<p>신라 금관의 출자형 모티브를 패턴으로 변형시켜서 스커트 도식화에 적용</p>	<p>백제 무녕왕릉의 왕비 금제관식을 패턴으로 변형시켜서 바지 도식화에 적용</p>
<p>녹각형 모티브를 미니스커트로 도식화에 적용</p>	<p>출자형 모티브를 남녀공용 후드티셔츠로 도식화에 적용</p>	<p>신라금제관식을 자켓으로 도식화에 적용</p>

대중성이 있는 금관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요소 중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 백제 무녕왕릉의 왕비 금제관식과 샤머니즘적 요소들이 가장 많이 표현되고, 모티브화 된 신라의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제 나비모양관 장식과 신라 금관 중 서봉총 금관에 나타난 출자형과 녹각형의 아름다운 디자인의 요소인 색, 형태, 이미지, 등을 응용하여 모티브를 선정하였다. 이미지 개발은 Adobe photoshop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대 및 생략과 반복을 통해 재구성 하였다<표2,3>. <표2>에서 1, 2번에 사용된 백제 무녕왕릉의 왕비 금제관식과 서봉총의 금제관식은 관식의 외형적인 모티브를 변형 없이 그 자체만으로 반복시켜 패턴화를 하였고, 바탕으로 쓰인 배경은 작가가 직접 제작한 텍스타일 작품과 매화도수병<조선시대>작품을 사용하였다. 3, 4번에는 서봉총금관의 출자형과 녹각형태 형태를 여러 가

지 배열로 재구성하여 분리, 확대, 축소와 반복 형태로 패턴화 하였다. <표3>에서는 패턴화 된 문양을 도식화로 전개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IV. 결론

전통을 현대 디자인에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과 동시에 매력적인 작업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것을 통해야 선조들의 사상과 문화를 한결 가까이 느끼게 됨은 물론이고, 크게 부각되지 않은 전통적인 요소들의 활용가치가 매우 뛰어난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대 디자인에서 전통 요소의 활용은 아직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제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의 금관의 이론적인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티브와 서양의 텍스타일 패턴 구성방법 및 전개방법을 조합하여 패턴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식화를 통하여 의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삼국시대 금관의 구조와 양식은 비슷하나 각 시대의 사상과 상징성을 고찰한 결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대체로 샤머니즘과 불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전통문양을 주로 변형시켜 복식의 각종 아이템과 공예품에서 그 활용도를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관의 외형적인 요소를 모티브로 변형시키고, 직물디자인으로 응용하여 무한한 디자인의 활용과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었다.

셋째, 직물디자인으로 접목시키고 도식화로 전개시키기 위해 금관문양을 분리, 확대, 반복 등의 방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현대적 기호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금관의 이론적인 배경을 조사하고 모티브 선정에서부터 도식화까지 접목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후속 연구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을 작품 제작과 문화상품에까지 활용하는 방법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혜경, 정선일 (1999).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전통문양의 응용. -설윤형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8(3), p.566.
- 2) 김영숙 (2004).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83.
- 3) 유희경 (2001).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6.
- 4) 우리웃 이천년 (2001). *우리웃 이천년*. 미술문화, p.10.
- 5) 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48.
- 6) 북사<北史>. 列傳 高麗條. ‘貴者, 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 수서<隋書>. 列傳 高麗條. ‘貴者, 冠用紫羅飾以金銀.’
- 신당서<新唐書>. 列傳 東夷 高麗條. ‘王服五采 以白羅製冠... 珥兩鳥羽金銀雜’
- 7) 유희경 (2001). *Op. cit.*, p.9.
- 8) 진미희 (1997). 한국 고대 관모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5.
- 9) 유희경 (2001). *Op. cit.*, pp.32-33.
- 10) 김병모 (1998). *Op. cit.*, p.110.
- 11) 유희경 (2001). *Op. cit.*, p.44.
- 12) 우리웃 이천년 (2001). *Op. cit.*, p.19.
- 13) 김병모 (1998). *Op. cit.*, p.92.
- 14) 윤세영 (1991). 무령왕릉 출토관식에 관하여.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백제문화* 21, p.143.
- 15) 최옥수 (2003). 무령왕릉 출토 관식의 상징성과 미적특성 연구. *한국공예논총*, p.175.
- 16) 윤세영 (1991). *Op. cit.*, p.142.
- 17) 김병모 (1998). *Op. cit.*, p.93.
- 18) 한국대학박물관 협회 제 28회 연합전시 도록 (1991). *한국의 장신구*, p.9.
- 19) 신정희 (1999). 신라금관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장신구 제작.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20) 신정희 (1999). *Op. cit.*, p.8.
- 21) 국립경주박물관 (1996). *신라의 무덤*. 통천문화사, p.57.
- 22) 신정희 (1999). *Op. cit.*, p.9.
- 23) 한국대학박물관 협회 제 28회 연합전시 도록 (1991). *Op. cit.*, p.15.